

광주시체육회 새 회장 누구...본격 선거 준비

5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등록의사 표명서 최종 접수 전갑수 광주배구협회장·이상동 북구체육회장·이강근 광주당구연맹회장 등록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올랐다. 29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최종 접수한 결과 전갑수(61) 광주시 배구협회장과 이상동(58) 광주시 북구체육회장, 이강근(67) 광주시당구연맹회장이 서류를 제출했다. 시체육회장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는 광주시체육회와 구체육회 등의 단체장, 비상임 임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다. 이에 따라 사실상 5월 중순께 치러질 선거에 출마할 체육계 인사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체육 관련 단체와 무관한 일반인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특정기간에 입후보 하면 된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은 (주)백양실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을 역임하고 광주시배구협회장,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을 맡고 있다. 사재를 출연

해 실업배구팀을 1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초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136표를 받아 김창준 후보에 불과 10표 차로 낙선할 정도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상동 북구체육회장은 생활체육 북구축구연합회장과 야구연합회장, 배드민턴연합회장에 이어 북구생활체육협의회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 제5대 의원과 광주북구새마을회 회장으로도 재임했다. 현재는 (유)가든주류 대표이사과 샹젤리제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강근 광주시당구연맹회장은 전 광주시생활체육 배구연합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장애인당구연맹

부회장, 사단법인 광주사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유)용산실업 대표다. 사실상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본격 선거 업무에 들어갔다. 시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내·외부 인사를 포함해 선관위 위원 9명을 구성했다. 선관위는 회장 직무대행이 위원을 추천, 최근 제9차 이사회 회의록을 얻어 최종 위촉했다. 위원은 체육회 내부위원과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명간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선관위는 보궐선거일 확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등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김선광 광주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은 "5월 중순경 치러질 보궐선거를 위해 선관위 위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김창준 전 회장이 지난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김선광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거점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우수·장려상

코로나 피해 극복 우수사례 공모전서 2개 부문 수상



(사)광주시 거점스포츠클럽(회장 윤오남)이 대한체육회 우수클럽포상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29일 광주시 거점스포츠클럽(사진)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로부터 2020년도 성과평가·코로나19 피해 극복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클럽 포상을 받았다. 광주거점스포츠클럽은 전국 154개 클럽을 대상으로 경영극복·혁신 사례 부문과 창의적 종목운영 사례 부문 평가 2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았다. 경영극복·혁신 사례 부문에서는 우수상을, 창의적 종목운영 사례 부문에서는 장려상 포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전국 클럽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거점스포츠클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 및 스포츠교육지원 협약서 체결을 통한 지역이동센터 재능기부, 사회복지법인 용진원 등에 대한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로 휴관한 기간 동안 전문지도자를 파견해 SIS국제학교 유치부 및 초·중등부 스포츠 클럽과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종목 운영 부문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 받았다. 광주거점스포츠클럽은 휴관 기간에도 홈트레이닝 동영상 제작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윤오남 광주시 거점스포츠클럽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양한 연령·종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면서 지역 엘리트선수를 육성하고 배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것이 덩크다" 29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2021 NCAA 남자 농구 토너먼트 16강전에서 USC 트로안스의 에반 모블리가 오레곤 덕스의 프랭크 캡닝의 수비를 뚫고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F1 그랑프리 시즌 개막전 해밀턴, 짜릿한 역전 우승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역대 최다 챔피언에 도전하는 '영국의 자존심' 루이스 해밀턴(35·메르세데스·사진)이 2021시즌 개막전을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장식했다. 해밀턴은 29일(한국시간) 바레인 인터내셔널 서킷(5.412km·56랩)에서 열린 2021 F1 그랑프리 1라운드 '바레인 그랑프리' 결선에서 1시간 32분 3초 89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라이벌' 막스 페르스타펜(레드불)을 0.745초 차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예선에서 페르스타펜에게 밀려 폴 포지션 자리를 내주고 2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해밀턴은 레이스 내내 얽히락뒤락 경쟁을 펼친 끝에 개인 통산 96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 시즌 F1 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르면서 '전설' 미하엘 슈마허(52·독일)와 역대 최다 챔피언(7회) 통틀어 이룬 해밀턴은 올 시즌 개막전부터 우승으로 장식하며 '최다 챔피언 등극'을 향해 순항했다. 더불어 해밀턴은 바레인 그랑프리 통해 슈마허가 보유했던 F1 역대 최다랩(5111랩) 기록도 넘어섰다. 스타트부터 페르스타펜의 뒤를 바짝 추격한 해밀턴은 상대의 피트인을 활용해 선두로 나서면서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해밀턴은 53번째 곡선 구간에서 외곽으로 추월한 페르스타펜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겼지만 다시 추월하며 0.745초차 승리를 따냈다. 한편, 2년 만에 F1 복귀를 앞두고 교통사고의 불운을 겪었던 '베테랑 드라이버'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알파인-르노)는 예선에서 9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결선에서 레이스 도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리타이어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미하엘 슈마허의 아들 믹 슈마허(22·하스)는 꿈에 그리던 F1 무대 데뷔전에서 16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무실세트 우승 노린다

여자배구 챔피언결정전 오늘 3차전...기세 몰아 '퍼펙트 우승' 도전

여자프로배구 GS칼텍스의 레프트 강소휘(24)는 "플레이오프에서 서브 폭탄을 맞는 다른 팀 선배들을 보며 '남 일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챔피언결정전에서 강소휘는 공격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로 팀 승리에 공헌했다. '서브 폭탄'에 대한 고민은 '남의 일'이 됐다.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GS칼텍스는 26일과 28일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1, 2차전에서 모두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승했다. 3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치르는 3차전에서도 3-0으로 승리하면 2015-2016시즌 현대건설에 이어 여자부 역대 두 번째로 챔피언결정전 '무실세트 우승'의 진기록을 세운다. 프로배구 컵대회 우승,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GS칼텍스는 여자부 사상 첫 트레블(동일 시즌 3관왕)과 구단 첫 통합우승에 단 1승만 남겼다. 대

업을 무실세트 진기록으로 장식할 수도 있다. 챔피언결정 1, 2차전에서 공수 모두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압도했다. GS칼텍스의 챔피언결정전 공격 성공률은 48%, 리시브 효율은 42.55%였다. 흥국생명은 공격 성공률 33.5%, 리시브 효율은 30.6%였다. 리시브 정확도가 높으면, 속공, 킥 오픈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안정적인 리시브로, 높은 공격 성공률을 만들었다. 강소휘가 GS칼텍스의 리시브 라인을 안정시킨 '공신'이었다. 26일 1차전에서 강소휘는 GS칼텍스에서 가장 많은 17번 서브 리시브를 했다. 범실은 한 개도 하지 않았고, 7차례 완벽한 리시브를 했다. 1차전 강

소휘의 리시브 효율은 41.18%였다. 28일 2차전에서 강소휘는 16번 상대 서브를 받았다. 리베로 한다혜(24년) 다음으로 많은 서브 리시브를 했다. 리시브 효율은 1차전보다 더 좋았다. 강소휘는 10차례 완벽한 리시브를 했고, 한 번 범실을 해 리시브 효율 56.25%를 찍었다. 흥국생명 레프트 김미연은 플레이오프에 이어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서브 폭탄에 시달린다. 김미연은 기업은행과의 플레이오프에서 리시브 효율 33.64%로 버텼다. 하지만 챔피언결정 1, 2차전에서는 리시브 효율이 14.29%로 뚝 떨어졌다. 김미연이 GS칼텍스의 목적다 서브를 버텨내지 못하면, 흥국생명이 반등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고질라 VS. 콩
3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더 박스, 모리타니안
4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5관	미나리, 리스트
6관	고질라 VS. 콩
9관	최면, 트랜지 허커
7관 씨네마	최면, 미션 파서블
8관 씨네마	미나리, 스파이의 아내, 악인도 미운틴 타임, 톱과 제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